

세상을 놀래우는 공화국의 불가항력의 원천 - 일심단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된 소식은 국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김정은령도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지도》, 《가장 세련되고 로숙한 령도자의 위상 또다시 과시》, 《인류는 머지않아 유일무이한 리상국가로 우뚝 솟은 조선의 모습을 목격하게 될것이다》...

세계인문들이 러친 이 감탄은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국가와 인민이 나아가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승리의 밝은 미래에 이끌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예우와 경중의 목소리이다.

환없이 친절하고 자애로운 아버지

위인의 세계를 헤아린다는것은 보통사람으로서의 힘든 일이다. 더우기 고급동서 어느 력사의 갈피에서도 찾아본적 없는 절세의 위인 김정은령도자께서 지니신 크나큰 세계를 다 안아 본다는것은 너무도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 세인이 우러르는 대성인이시기 전에 인민의 친근한 아버이시기에 경애하는 그의 모든 사색과 실천은 언제나 인민과 맞닿아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회의장에 여러가지 인민소비품들을 가지고오셨던것이였다.

거기에는 아이들의 혁띠와 인민들이 리용하는 치약을 비롯하여 최근 상업봉사상품을 통해 인민들에게 공급되는 소비품들이 다 있었다.

경애하는 그의께서는 소비품들의 질과 가격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온 나라 가정세대들에게 귀는 생활살필품을 속속들이 헤아려주시었다.

회의참가자들은 너무도 큰 충격에 몸둘바를 몰랐었다. 그들만이 아니었다. 그 소식에 접한 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하신 둘째 의정에 대한 결론에서 삼반년기간 여러 정치적계기를 통하여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국가제일주의정신을 제고하고 당과 국가, 인민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을 온 세상에 뚜렷이 시위하였다고 하시었다.

사회주의조선의 불가항력! 하다면 엄혹한 환경과 시련속에서도 더 높이 발휘되고 시위되는 사변적인 이야기라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로 전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세상을 들었다놓는 사변적인 이야기라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로 전하려고 한다.

환없이 친절하고 자애로운 아버지

나라 인민들모두가 놀라움과 고마움에 격정을 누를길 없었다. 어찌 그렇지 않랴.

소비품! 말그대로 그것은 사람들이 일상생활과정에 리용하는 너무나 평범하고 흔한 물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당과 국가의 중요정책과 결정들을 도의체택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이 쓰는 소비품들의 질과 가격문제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실줄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사실 소비품의 질에 대해서는 일군들자체도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고있었다.

다만 지금은 어떤 때인가.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제재압살책동이 계속되고 몇해째 세계를 휩쓰는 악성전염병과 자연재해로 나라의 경제형편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렵다. 게다가 지금은 건국이래의 대동란이라고 말할수 있는 엄혹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속에서 누가 소비품의 질 문제에 대해서까지 생각할수 있었랴. 그것을 쓰고 사는 인민들조차 떳떳하게 돌려보내던 문제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그의께서만은 그렇게 하실수 없으셨었다.

이께서만은 아무리 나라형편이 어렵다 해도 자신께서 하늘처럼 떠받치는 인민들이 겪고있는 사소한 불편도 그대로 스쳐 지나실수가 없으셨었다.

진정 소비품들의 무게는 얼마나 가지 않는것이였지만 그 하나하나에 실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의 무게는 그 무엇보다도 대비할수 없이 크나큰것이였다.

바로 이런분이사기에 이번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밝혀주시신 하반년도에 수행할 국가사업의 방향과 실행대책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인민을 위한것이였다.

그날의 사업들은 이야기를 전해갈수록, 회의장에서 하신 경애하는 그의의 말씀의 구절구절을 새겨볼수록 이 나라 인민들의 눈가에 는 지난 6개월의 나날들에 새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자욱자욱이 눈물겹게 어려였다.

어떻게 밝아온 새해의 첫아침이였던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와 함께 밝아온 이 나라의 첫아침이였다.

그렇게 시작된 경애하는 그의의 위민헌신의 장정이였다. 별명의 그 자욱자욱은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해결을 위한 화성지구와 함남도인민들의 남보장실을 위한 대구역모련포는 남동장건설의 착공식장에도 찍혀있고 공화국전략부력의 현대성과 절대적강세를 파시던 《화성로-17》형의 발사장에도 찍혀있었다.

그런데 이뿐이랴. 건국이래 처음으로 맞든 방역전쟁의 나날 한 몸의 위험도 아랑하지 않았고 평양시의 약국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신 회색적인 그밤에도 새겨져있다.

어찌 이뿐이랴. 건국이래 처음으로 맞든 방역전쟁의 나날 한 몸의 위험도 아랑하지 않았고 평양시의 약국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신 회색적인 그밤에도 새겨져있다.

비록 길지 않은 지난 6개월의 나날에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을 짝 채운것은 무엇이였던가.

자신의 온넋을 바쳐 인민들에게 만복을 안겨주시고 인민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던 그들결로

가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아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함께 나누시는분. 사랑하는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실 열화의 정을 지니신 위대한 아버이의 자애로운 모습이였다.

이 세상 좋은것은 인민들에게 다 주고있으시어 자신께서는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로고에 로고를 덧쌓으시고 인민들이 겪는 사소한 불편도 마음쓰시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그의의 불보다 뜨거운 그 정은 언제나 사랑의 생명수가 되어 온 나라 인민들의 피줄마다에 뜨겁게 흘러들고있다.

이런 자애로운 인민의 아버이를 수령으로 모시였기에 그처럼 어렵고 그 어느때보다도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도 이 땅에서는 령도자의 송고한 뜻을 충심으로 받든

것이 억척불변의 죽풍으로 되고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장성과 전진의 동음이 새겨져 울려나오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들을 위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리용하시던 저택자리에 현대적인 살림집을 지어줄 추상을 무르익히고 건설부지확정과 력량편성, 설계와 시공, 자체조성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직접 조직지휘하시었다. 또한 한달 남짓한 기간에만도 240여개의 설계도면들을 보여주시던 호화주택으로서의 면모가 살아나게 하나하나 풀며 건설시켜주시고 여러 차례나 건설장을 찾으시어 살림방들의 배 오소들과 휴식구, 걸음길과 교통수단, 나무 한그루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관심하시면서 로고를 바치시었다.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인민의 호화주택, 사회주의변화가 완공되도록 세심히 지도하여

을 맞으며 누구나 부러워하는 경무속에 일떠선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에 새집들이를 한 평범한 로력혁신자의 집에서 울려나온 가식없는 심장의 목소리였다. 너무도 평범한 모습들이였다. 이 땅 어디서나 볼수 있는 근로자들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들을 위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리용하시던 저택자리에 현대적인 살림집을 지어줄 추상을 무르익히고 건설부지확정과 력량편성, 설계와 시공, 자체조성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직접 조직지휘하시었다. 또한 한달 남짓한 기간에만도 240여개의 설계도면들을 보여주시던 호화주택으로서의 면모가 살아나게 하나하나 풀며 건설시켜주시고 여러 차례나 건설장을 찾으시어 살림방들의 배 오소들과 휴식구, 걸음길과 교통수단, 나무 한그루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관심하시면서 로고를 바치시었다.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인민의 호화주택, 사회주의변화가 완공되도록 세심히 지도하여

이 땅에선 누구나 심장에 간직하고 사는 말이 있다.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 믿고 따르리라!》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을! 여기에는 그 어떤 사심도 가식도 변심도 없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열렬하며 가장 진실한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이 어려였다.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이 역센 기둥으로 박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치면도 끄떡없었다.

올해 상반기에만도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울려나오는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 깊은 곳 심중의 목소리는 얼마나 많았겠나.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궁궐같은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시다니... 그저 노동자들을 아껴주는 고마운 나라를 위해 힘껏 일한것밖에 없는데... 경애하는 원수님! 이생면 무한 때까지,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원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

이렇게만은 아니라 여러 대학들의 유능한 교수들로부터 강의도 받을수 있게 푸린 도서관 등 교육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갖춘 대학으로 변모되였다.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소학교교수방범법기술, 자연실험교수법기술, 어린이기능개발기술 보급기술을 비롯한 여러 교실들을 돌아보시고 교원들의 업무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6(2017)년 2월 평양교원대학에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우에 올려세워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새세대 유능한 인재로 키워줄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밑에 초등교육이 증시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7(2018)년 1월 대소환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개진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신것은

올해 유능한 교수들로부터 강의도 받을수 있게 푸린 도서관 등 교육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갖춘 대학으로 변모되였다.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소학교교수방범법기술, 자연실험교수법기술, 어린이기능개발기술 보급기술을 비롯한 여러 교실들을 돌아보시고 교원들의 업무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6(2017)년 2월 평양교원대학에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우에 올려세워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새세대 유능한 인재로 키워줄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밑에 초등교육이 증시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7(2018)년 1월 대소환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개진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신것은

올해 유능한 교수들로부터 강의도 받을수 있게 푸린 도서관 등 교육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갖춘 대학으로 변모되였다.

이렇게만은 아니라 여러 대학들의 유능한 교수들로부터 강의도 받을수 있게 푸린 도서관 등 교육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갖춘 대학으로 변모되였다.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소학교교수방범법기술, 자연실험교수법기술, 어린이기능개발기술 보급기술을 비롯한 여러 교실들을 돌아보시고 교원들의 업무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6(2017)년 2월 평양교원대학에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우에 올려세워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새세대 유능한 인재로 키워줄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밑에 초등교육이 증시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7(2018)년 1월 대소환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개진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신것은

올해 유능한 교수들로부터 강의도 받을수 있게 푸린 도서관 등 교육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갖춘 대학으로 변모되였다.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소학교교수방범법기술, 자연실험교수법기술, 어린이기능개발기술 보급기술을 비롯한 여러 교실들을 돌아보시고 교원들의 업무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6(2017)년 2월 평양교원대학에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우에 올려세워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새세대 유능한 인재로 키워줄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밑에 초등교육이 증시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7(2018)년 1월 대소환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개진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신것은

올해 유능한 교수들로부터 강의도 받을수 있게 푸린 도서관 등 교육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갖춘 대학으로 변모되였다.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소학교교수방범법기술, 자연실험교수법기술, 어린이기능개발기술 보급기술을 비롯한 여러 교실들을 돌아보시고 교원들의 업무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6(2017)년 2월 평양교원대학에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우에 올려세워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새세대 유능한 인재로 키워줄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밑에 초등교육이 증시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7(2018)년 1월 대소환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개진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신것은

올해 유능한 교수들로부터 강의도 받을수 있게 푸린 도서관 등 교육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갖춘 대학으로 변모되였다.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소학교교수방범법기술, 자연실험교수법기술, 어린이기능개발기술 보급기술을 비롯한 여러 교실들을 돌아보시고 교원들의 업무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6(2017)년 2월 평양교원대학에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우에 올려세워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새세대 유능한 인재로 키워줄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밑에 초등교육이 증시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7(2018)년 1월 대소환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개진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신것은

올해 유능한 교수들로부터 강의도 받을수 있게 푸린 도서관 등 교육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갖춘 대학으로 변모되였다.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소학교교수방범법기술, 자연실험교수법기술, 어린이기능개발기술 보급기술을 비롯한 여러 교실들을 돌아보시고 교원들의 업무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6(2017)년 2월 평양교원대학에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우에 올려세워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새세대 유능한 인재로 키워줄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밑에 초등교육이 증시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7(2018)년 1월 대소환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개진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신것은

올해 유능한 교수들로부터 강의도 받을수 있게 푸린 도서관 등 교육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갖춘 대학으로 변모되였다.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소학교교수방범법기술, 자연실험교수법기술, 어린이기능개발기술 보급기술을 비롯한 여러 교실들을 돌아보시고 교원들의 업무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6(2017)년 2월 평양교원대학에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우에 올려세워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새세대 유능한 인재로 키워줄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밑에 초등교육이 증시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7(2018)년 1월 대소환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개진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신것은

올해 유능한 교수들로부터 강의도 받을수 있게 푸린 도서관 등 교육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갖춘 대학으로 변모되였다.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소학교교수방범법기술, 자연실험교수법기술, 어린이기능개발기술 보급기술을 비롯한 여러 교실들을 돌아보시고 교원들의 업무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6(2017)년 2월 평양교원대학에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우에 올려세워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새세대 유능한 인재로 키워줄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밑에 초등교육이 증시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7(2018)년 1월 대소환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개진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신것은

올해 유능한 교수들로부터 강의도 받을수 있게 푸린 도서관 등 교육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갖춘 대학으로 변모되였다.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소학교교수방범법기술, 자연실험교수법기술, 어린이기능개발기술 보급기술을 비롯한 여러 교실들을 돌아보시고 교원들의 업무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6(2017)년 2월 평양교원대학에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우에 올려세워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새세대 유능한 인재로 키워줄수 있다.

주시고 친히 《경루동》이라고 이름도 지어주시었으며 일사하는 집주인들의 모습도 친부모의 심정으로 정경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이렇듯 자애로우신분을 아버이로 모셨기에 지구상 그 어디서나 슬픔과 비애의 폭성이 터져나오있는 오늘날 이 땅에선 행복의 웃음소리가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것이다.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지 않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형토의 천재 교육자양성의 본보기대학으로 꾸려주시어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교육을 떠나서는 사회적진보와 번영을 이룩할수 없으며 민족의 존엄과 밝은 앞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특히 사람의 지적두뇌가 발전하는 중요한 단계인 어린시절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게에 따라 현실을 보고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달라지며 공고해진다. 뿌리가 든든해야 충실한 열매가 달리는것처럼 혁명전어린이교육과 소학교교육을 새로운 과학적전대에 올려세워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새세대 유능한 인재로 키워줄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밑에 초등교육이 증시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7(2018)년 1월 대소환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개진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신것은

올해 유능한 교수들로부터 강의도 받을수 있게 푸린 도서관 등 교육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갖춘 대학으로 변모되였다.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소학교교수방범법기술, 자연실험교수법기술, 어린이기능개발기술 보급기술을 비롯한 여러 교실들을 돌아보시고 교원들의 업무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6(2017)년 2월 평양교원대학에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우에 올려세워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새세대 유능한 인재로 키워줄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밑에 초등교육이 증시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7(2018)년 1월 대소환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개진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신것은

올해 유능한 교수들로부터 강의도 받을수 있게 푸린 도서관 등 교육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갖춘 대학으로 변모되였다.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소학교교수방범법기술, 자연실험교수법기술, 어린이기능개발기술 보급기술을 비롯한 여러 교실들을 돌아보시고 교원들의 업무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6(2017)년 2월 평양교원대학에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우에 올려세워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새세대 유능한 인재로 키워줄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밑에 초등교육이 증시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7(2018)년 1월 대소환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개진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신것은

올해 유능한 교수들로부터 강의도 받을수 있게 푸린 도서관 등 교육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갖춘 대학으로 변모되였다.

올해 유능한 교수들로부터 강의도 받을수 있게 푸린 도서관 등 교육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갖춘 대학으로 변모되였다.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소학교교수방범법기술, 자연실험교수법기술, 어린이기능개발기술 보급기술을 비롯한 여러 교실들을 돌아보시고 교원들의 업무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6(2017)년 2월 평양교원대학에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우에 올려세워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새세대 유능한 인재로 키워줄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밑에 초등교육이 증시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7(2018)년 1월 대소환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개진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신것은

올해 유능한 교수들로부터 강의도 받을수 있게 푸린 도서관 등 교육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갖춘 대학으로 변모되였다.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소학교교수방범법기술, 자연실험교수법기술, 어린이기능개발기술 보급기술을 비롯한 여러 교실들을 돌아보시고 교원들의 업무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6(2017)년 2월 평양교원대학에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우에 올려세워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새세대 유능한 인재로 키워줄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밑에 초등교육이 증시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7(2018)년 1월 대소환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개진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신것은

올해 유능한 교수들로부터 강의도 받을수 있게 푸린 도서관 등 교육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갖춘 대학으로 변모되였다.